

미원기념사업회가 조영식 설립자의
주요 저서 4권의 윤문본 출간을 완료했다.



대학주보

서울 24차, 국제 18차 이후 중운위 회의록 미공개 (7월 실시) (5월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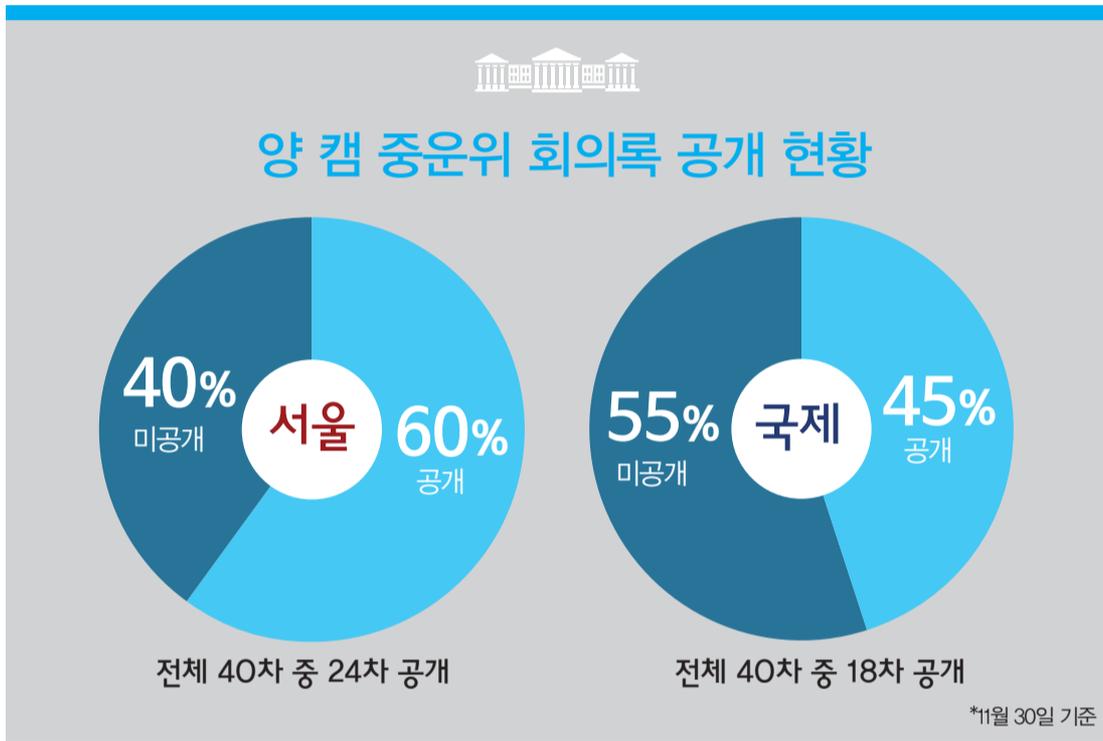
김경민 기자 elude12@khu.ac.kr

국제캠퍼스(국제캠) 총학생회(총학)의 확대운영위원회(확운위) 및 중앙운영위원회(중운위) 회의록과 예산안이 반년 이상 누락되고 있다. 서울캠퍼스(서울캠) 역시 중운위 회의록이 7월분 이후로 올라오지 않았다. 소통을 강조해 온 양 캠퍼스 총학이 학생들의 알 권리를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양 캠퍼스 총학은 중운위와 확운위를 통해 학내 주요 안건에 대한 심의 의결을 진행한다. 중운위는 학생대표단이 참여해 학생회의 전반적인 사안에 대해 의결하는 회의다. 확운위는 과 단위 이상의 학생 자치조직이 참여해 자치회비 예결산안 등 주요 사안을 의결하는 회의다. 확운위 안건은 중운위 안건 상정 의결을 거쳐서 상정한다.

국제캠 학생회칙 7장 제62조 제2항에 따르면 총학은 학생회 의결기구의 회의 결과와 활동을 의무적으로 회원인 학생들에게 보고해야 한다. 서울캠 학생회칙의 경우 의결기구의 회의 관련 보고를 강제하지는 않지만 학생회 운영전반에 관한 학생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11월 기준 국제캠 총학은 5월 14일 실시된 18차 중운위를 마지막으로 반년 넘게 회의록을 올리지 않았다. 서울캠 총학은 7월 12일 실시된 24차 중운위 이후로 회의록



양 캠퍼스 중운위 회의록 공개 현황

을 올리지 않은 상태다. 확운위의 경우 서울캠의 회의 결과 보고는 10월 실시된 6차까지, 회의록은 8월10일 실시된 4차 확운위까지 업로드가 완료된 상태다. 국제캠은 확운위 기록을 공개하지 않았다.

중운위의 경우 학생들은 회의록 공개 전에는 회의 개최 여부조차 알 수 없어 '깜깜이 심의'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양 캠퍼스 중운위가 모두 40차까지 진행된 상황에서 서울캠의 중운위 회의록 공개율은 60%로 나타났으며 국제캠 공개율은 45%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확운

위의 경우 서울캠은 7차, 국제캠은 6차까지 진행돼 서울캠 확운위 회의록 공개율은 57% 국제캠은 0%를 기록했다.

회의록이 올라오지 않는 이유에 대해 서울캠 남우석(철학 2018) 총학생회장은 "등록금반환 등 학교 본부와 대응할 때 학교에서 회의록을 실시간으로 본다"며 "(학생회의) 전략논의를 할 때 일부러 늦게 회의록을 올리다보니 업무가 느껴져 못 올린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확운위는 회의 내용을 정리해 SNS에 업로드 했다"며 "(회의록

은) 속기록이 늦어져 마저 올리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국제캠 전완주(일본어학 2015) 총학생회장은 "일정 시점 이후부터 내부 사정으로 (중운위 회의록) 업로드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일련의 사건 (지난 4월 KHUiz-On 행사 소통 논란)을 겪으며 한 번 브레이크가 있었고 방향이 있다 보니 조금 (업로드가) 어렵게 됐다"고 밝혔다. 확운위에 대해서는 "의견을 내는 분이 없고 의결 내용이 전부 가결됐다"며 "이견이 없어 회의록을 남길 내용이 없다"

고 해명했다.

결산안이 올라오지 않는 점도 문제다. 국제캠 총학은 회칙에 따라 최소 매 학기 당 한번 예산에 대한 결산보고를 진행하여야 한다. 서울캠은 매달 결산 내역을 공개한 반면 국제캠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결산 내역을 공개하지 않은 상태다. 학생회가 학생들이 납부한 자치회비를 운용해 주요 행사를 진행하는 만큼 학생들에게 예산 사용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 결산 보고를 외면하는 국제캠 총학이 학생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것이다.

이에 대해 전 회장은 "일련의 사건 (지난 4월 KHUiz-On 행사 소통 논란)을 겪으면서 (예결산의) 공표나 공고까지는 하지 않는 방향으로 할 예정이며 중운위에서도 그렇게 논의가 됐다"며 "예결산안이 반드시 확운위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중운위에서 논의하게 되는 것으로 충분하다 생각했다"고 밝혔다.

결산안이 학생들에게 공개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인준된 예산안에 맞춰 결산을 하더라도 결산안 하나하나에 대한 학우들의 시시비비가 갈릴 수 있다"며 "저희에 대한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예결산을 심의하고 의결해 준 중운위와 확운위 전체적으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학생총투표 종료 서울캠 KHUPlay 당선

이현정 기자 pr3417@khu.ac.kr

지난 2일 서울캠퍼스(서울캠) 학생총투표 개표를 끝으로 양 캠퍼스 학생총투표 선거가 마무리됐다. 서울캠 총학생회(총학)은 KHUPlay

선본이 찬성 77.8%(5,365표), 반대 12.8%(884표), 기권 9.3%(642표)를 얻으며 봉건우(자율전공학 2017) 정후보와 김다운(무역학 2018) 부후보가 당선됐다. 국제캠퍼스(국제캠) 총학 선거는 후보자 미등록으

로 무산됐다.

서울캠 총학 선거는 총 유권자 13,559명 중 6,891명이 투표에 참여하며 50.8%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서울캠 총학 선거구 KHUPlay 선본 봉건우 당선자는 "투표에 참여하고 관심을 가져주신 학우분들이 후회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다운 당선자는 "학우들의 권리 증진을 위해, 경희로운 내일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서울캠은 3개 선거구를 제외하고

후보자 등록이 진행됐다. ▲총유학생회 ▲생활과학대학 ▲약학대학은 후보자 미등록으로 선거가 무산됐다. 경희대학은 3일까지 투표 최종 연장을 진행했지만 투표율이 과반수를 넘지 못해 이후 재선거를 진행할 예정이다.

국제캠의 경우, 총학을 포함한 7개 선거구가 후보자 미등록으로 선거가 무산됐다. 총학생회와 소프트웨어융합대학을 포함한 5개 단과대학과 중앙동아리연합회는 이후 비

상대책위원회(비대위) 체제로 전환한다. 후보자 미등록으로 선거가 무산된 선거구는 서울캠과 마찬가지로 보궐선거를 통해 후보자 선출에 나선다. 국제캠 전완주(일본어학 2015) 총학생회장은 "단위대표자들이 학기 초 행사 진행과 단과대학 학생회 구성을 총학 업무와 병행하는 것은 어려워 3월까지 임기연장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 이번 호가 2학기 종간호입니다.